

## 1. 들어가면서

2015 년 한국의 방송은 드라마에서 예능까지 1980 년대와 90 년대를 추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tvN 의 드라마<응답하라 1988>(2015 년 11 월 6 일-2016 년 1 월 16 일, 금요일과 토요일방영)과 <시그널>(2016 년 1 월 22 일-2016 년 3 월 12 일)은 높은 시청률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노스탤지어를 자극<sup>1</sup>했다.

한편 영화 <그라운드의 이방인>(2015, 김명준감독, 이하 <이방인>)은 1980 년대를 다른 방식으로 추억하는 다큐멘터리이다. 한국의 척박한 영화제작환경에서 소설편당으로 제작비를 충당했는데, 김명준 감독은 이전에도 재일조선인의 민족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우리 학교>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방인>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다큐멘터리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 다큐멘터리 <이방인>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방식을 통해 과거의 기억이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소환되고 노스탤지어를 상기시키는 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1980 년대 한국에 대한 몇가지 기억의 편린들

여기에서는 영화<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된 1980 년대에 대해 재일조선인들과 관련해서 몇가지 짚어보려고 한다. 소지금의 제한, 한국전쟁의 발발, 전염병의 유행, 그리고 조국의 분단 등을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게 된 재일조선인 1 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학교를 세워 우리말을 가르치고 한글잡지와 신문을 발행하기도 하며 민족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은 재일조선인 커뮤니티내부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1 세들의 경우 언젠가는 조국이 통일되리라는 생각이 강했고 이런 활동들도 통일후의 삶에 대비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

<sup>1</sup> 이 두 편의 드라마는 노스탤지어를 자극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지만, 전자가 1988 년의 서울올림픽과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쌍문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이웃간의 인정이 넘치는 서울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후자는 1980 년대와 90 년대의 미해결사건들을 정치적, 사회적 현안과 연결시키면서 현재와 소통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드라마이다.

이들과 달리 2 세<sup>2</sup>들은 1970 년 히타치에 취업하려고 했던 재일조선인 청년이 민족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당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이회성과 같은 재일조선인 2 세 작가들이 일본어로 작품활동을 지속하며 일본내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이학인 등의 영화감독이 자신들의 삶을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로 만든 시기도 1970 년대였다. 이는 재일조선인 2 세들이 1 세들이 주로 두각을 나타냈던 정치나 사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방면까지 폭을 넓히면서 일본사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1970 년대중반이후 재일조선인 2 세들은 북한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또는 그 어디에도 속할 가능성이 있는 자이니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sup>3</sup>. 자이니치는 1970 년대이후 1 세보다는 일본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부여받게 된 2 세들의 삶을 나타내는 호칭이기도 하다.

그런데 1980 년대이후 이런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6 년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개최라는 국제적 이벤트를 앞둔 한국에 대해 일본의 미디어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는 1980 년대 한국의 이런 국제적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일조선인 2 세들의 국적문제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주목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는 국민국가의 존재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국제적 이벤트이며, 내셔널리즘을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들은 이 내셔널리즘의 결집의 장에 모인 재일조선인 2 세 선수들에게 주목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한국과 동일화시켜가는지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한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는 1980 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적 스포츠대회였지만, 재일조선인 2 세와 스포츠, 그리고 1980 년대를 연관지어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프로야구출범일 것이다. 한국의 프로야구는 1982 년에 출범했는데 첫 시합에서 시구를 선보인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였다. 또한 이는 스포츠가 정치와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80 년대 한국의 프로야구 출범에 큰 역할을 했던 이는 일본의 프로야구계에서 활약하던 재일조선인 2 세

---

<sup>2</sup> 본 발표에서는 재일조선인 1 세, 2 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편의상의 이유이며, 재일조선인사회를 세대론적 시점에서 구분하여 보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sup>3</sup> 윤건차 지음, 박진우 외 옮김, 2016,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신문출판

장훈이었다. 일본에서 장훈은 히로시마피폭자이면서 야구선수로서는 장애를 가진 재일조선인 2 세라는 타이틀로 이미 1970 년대에 텔레비전다큐멘터리에서 소비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1980 년대 프로야구출범이후 만화와 드라마, 영화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 3. 고시엔과 잠실의 ‘이방인’

한국야구사는 1982 년을 프로야구가 출범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하고 있는데, [재일동포야구부] 가 한국의 잠실봉황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것도 같은 해이다. 잠실봉황기대회는 자본의 힘이 개입하지 않는 아마추어 고교야구대회인데, [재일동포야구단] 은 한국전쟁직후인 1956 년부터 1997 년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했다. 고교야구는 가장 비상업적이고 초국적 영역처럼 보이는 스포츠이지만 한국각지에서 지역별로 출전하는 야구대회에서 [재일동포야구단] 은 한국이란 상상의 공동체의 국경을 넓히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고시엔 (甲子園) 에서는 1981 년에 이방인으로 호명된 재일조선인 선수들이 있었다. 고시엔고교야구대회에서 교토상업고등학교 (京都商業高校) 와 호토쿠가쿠엔 (報徳学園) 의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이 두 학교를 합쳐 7 명의 재일조선인선수들이 ‘이방인’ 으로 출전하고 있었던 것<sup>4</sup> 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호명된 재일조선인 2 세 야구선수들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방인으로 호명되며 잠실야구경기장에 서게 된다.

영화<이방인>은 1981 년에 잠실봉황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던 [재일동포야구단] 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재결집시켜 그라운드에 세우려고 한다. ‘1982 년 대한민국 우리 생애 가장 뜨거웠던 그 때로 돌아갑니다’<sup>5</sup> 라는 영화포스터의 캐치프레이즈는 한국에서의 소비방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은 1982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틀안에,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러들이지만 이방인으로 위치지어진 재일조선인 2 세 야구단의 이야기이다.

또한 영화<이방인>은 ‘우리 생애 가장 뜨거웠던 그 때’ 의 노스탤지어를 소환한다. 스토켄(Sturken,1997)은 베트남전쟁이나 에이즈와 관련한 미국의 집합적 기억표상물을 분석하면서 개인의 기억(personal memory)이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을 통해 재편성되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

4 金贊汀、1988、『甲子園の異邦人—「在日」朝鮮人高校野球選手の青春』講談社文庫

5 영화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ocuforeigner> 게재 포스터

역사담론(official historical discourse)이 관련되어 있음을 날카롭게 분석한 바 있다. <이방인>은 [재일동포야구단] 에 대한 1980 년대의 한국의 집합적 기억을 기억을, 다큐멘터리라는 문화적 기억으로 재편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고교야구의 역사담론, 재일조선인에 대한 담론이 변화 혹은 변화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한국의 80 년대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어떻게 소환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 4. 나가며(미완)